

#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 준비학교 적극 지원한다

### 전북자치도교육청, 공립 일반고 교원 등 대상 연수 공모 신청 위한 행정사항, 운영 방안·모델 등 안내 인문학·과학·인공지능 등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2일 2층 강당에서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 신청 준비학교 지원을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2차 공모를 준비하는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학교법인과 학교 간 협약을 통해 교육과정과 교원 연수 등 교육 전반을 개선하는 특색있는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자율형 공립고 교원과 본청 및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60여명을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위한 행정 사항부터 운영 방안 및 모델 등을 안내했다. 특히 올해부터 추진되는 '자율형 공

립고 2.0'은 종전의 자율형 공립고와는 달리, 학교가 지역의 여러 주체와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인문학·과학·인공지능(AI) 등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학교 구성원이 희망하는 진로체험, 기초학력 지원 및 각종 심화학습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운영 2차 지정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도교육청 자체 심의 후 교육부에 추천한다. 이후 7월 교육부 선정 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 말 최종 선정

학교가 지정된다. 지정된 학교는 학교별 추진계획에 따라 올해 9월 또는 내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며, 5년간 매년 2억원을 지원받는다. 더불어, 교육혁신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자율성 부여 등의 특례 적용과 교장공모제, 교사 정원의 100%까지 초빙, 교사 추가배정 등 인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이 우리 지역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교육 모델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해 교육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율형 공립고 2.0'은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별로 자율적 교육모델을 운영, 지역의 교육 혁신을 실현하는 학교를 만들고자 도입된 제도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2일 이리모현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제로화 촉진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 전북자치도교육청, 이리모현초 통학로서 교통안전캠페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12일 이리모현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제로화 촉진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익산교육지원청, 익산경찰서, TS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익산녹색어머니연합회,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익산지회, 한국시니어클럽 및 전북자율방범대연합회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서 교육감은 이날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보행 안전 수칙을 새긴 홍보품을 직접 나눠주며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3원칙(서다·보다·걸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기 △교통신호 지키기 등 안전 보행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또 운전자들을 대상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30km/h 미만 서행 운전 △불법 주정차 금지 △우회전 시 일시 정

지 등 교통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통학로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녹색어머니연합회,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전북지부 및 한국시니어클럽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더 특별한 전북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면서 “우리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관련 통학로 주변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자치도교육청, 학력향상 도전학교 설명회

### 2024학년도 학력 신장 지원 기본방향·도전과제 영역 1인1학습지원 앱 '올라' 연계 학습코칭 프로그램 등 안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2일 전주비전대학교 비전컨벤션홀에서 2024학년도 중·고등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력향상 도전학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도내 34개 중학교와 52개 고등학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4학년도 학력향상 도전학교 운영방향을 안내했다. 주요 안내 사항은 △2024학년도 학력 신장 지원 기본방향 △학력향상 도전학교 도전과제 영역 △학습지원 앱 '올라' 연계 학습코칭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학력향상 도전학교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토대로 학년별·교과별·영역별 성취율을 분석하고 계획을 수립해 학생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이에 따르면 학습동기 부여, 학습역

량 함양, 교과학습 지원, 학습관리 지원, 학력향상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도전과제를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1인1학습지원 앱 '올라'를 통해 소속 학생들의 학습데이터를 제공받아 학습멘토, 학습코치 등과 연계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무엇보다, 1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습관리에 중점을 둔 학생들의 학습역량을 함양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력향상 도전학교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연계해 현장에서의 다중적·심층적 진단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학교 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집중점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모든 학교 및 기관을 대상으로 연 2회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집중 점검한다. 학교업무 경감을 위해 전문 보안업체를 활용한 정밀 점검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학교기본운영비 중 경상 운영비에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비용을 포함해 지원하고, 추가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가 보유한 장비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급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선제적인 점검과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을 통한 불법 촬영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RSV 감염증, 코로나19 감염시 더 취약'

### 전북대 이용철 석좌교수팀, 유럽알레르기 임상면역학저널에 연구성과 게재 RSV 백신, 다양한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증 임상 경과에 긍정적 영향 끼쳐

전북대학교 이용철 석좌교수(호흡기·알레르기내과), 정재석 교수(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연구팀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이하 RSV) 감염증이 코로나19 감염 시 더욱 심각한 결과를 유발할 수 있음을 의대 의료정보학교실 김중승 교수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밝혀 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 RSV 감염력이 있는 사람들에서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팬데믹 기간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증의 중증도가 유의하게 증가함을 확인, 그 결과를 관련 분야 세계적인 학술지인 '유럽알레르기 임상면역학저널'(Allergy, 저널영역학지수 12.4)에 최신히 게재했다. 현재까지 최대 규모인 약 860만 명을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 데이터베이스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직전 최근 3년 이내(2017~2019)에 RSV에 감염됐던 약 1만8,000명을 선별했고, 이들과 나이와 성별, 거주지역, 경제수준과 기저질환 등을 모두 비슷하게 매칭한 동일 규모의 대조군과 비교분석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과거 RSV 감염력이 있는 사람에서 코로나19의 발생이 의미 있게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추가적으로 표본코호트 내의 약 57만 명의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분석 결과, 선행 RSV 감염력이 있는 사람에게서 코로나19 관련 입원 및 중증 코로나19 발생이 유의하게 증가함을 관찰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직전 1년 전 RSV 감염이 있었던 사람에게는 중증 코로나19의 발



전북대학교 이용철 석좌교수, 정재석 교수 연구팀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이하 RSV) 감염증이 코로나19 감염 시 더욱 심각한 결과를 유발할 수 있음을 의대 의료정보학교실 김중승 교수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밝혀 냈다.

생이 더욱 뚜렷하게 증가함을 보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최근 대규모 국제적 임상 연구를 통해 다양한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에게 그 예방 효과가 증명되고 있는 RSV 백신이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성인에게도 속발될 수 있는 다양한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증의 임상 경과에 긍정적 영향을 줌으로써 이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결과로 학계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용철 석좌교수와 정재석 교수 연구팀은 오랜 기간 국가 지원 만성 폐질환의 병인 및 치료제 개발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오며 이 분야의 전문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엔 국내 최초로 '기도표적 치료제 개발 연구소'를 설립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들과의 협업을 통해 중증 호흡기계 질환의 정복을 위한 기도 표적 흡입형 신약 개발 및 속발 호흡기계 감염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백신 개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한편, RSV 감염증은 주로 영아에서 급성 모세기관지염을 일으키고, 그로 인한 장기적 호흡기계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비교적 흔한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증이다. 최근에는 이 바이러스가 다양한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에게 있어서도 심각한 호흡기계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다국적 제약사들이 앞다투어 백신 개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 지역사회 발전 상생협력체계 구축

### 전북대 JBNU지역발전연구원, 전주시정연구원과 협약

전북대학교 JBNU지역발전연구원(원장 권덕철)은 지난 12일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지역 현안 등에 관한 자료와 협력을 축적한 데이터를 공유·분석하는 데 협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으로 데이터와 실무 지식, 경험,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상호 간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상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협력을 비롯해 기술협력, 지·산·학·연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사업도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권덕철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상호 간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내 14개 시군 지역 현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



전북대학교 JBNU지역발전연구원(원장 권덕철)은 지난 12일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지역 현안 등에 관한 자료와 협력을 축적한 데이터를 공유·분석하는 데 협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으로 데이터와 실무 지식, 경험,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상호 간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상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협력을 비롯해 기술협력, 지·산·학·연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사업도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권덕철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상호 간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내 14개 시군 지역 현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

### 전주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JJ-프렌즈 호스트 패밀리 운영

전주대학교 국제교류원은 지난 12일 JJ-프렌즈 호스트 패밀리 결연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생활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날 직원 멘토 선생님과 멘티 유학생이 1:1로 총 10팀이 결연했다. 이들은 2024학년도 1학기 동안 정기적으로 만나며 한국어 대화부터 한국 문화 체험, 가정방문 등 다방면으로 교류하며 도움을 주고받는다. 이번 결연은 대학에 재직 중인 직원 선생님들이 멘토가 돼 유학생들이 초기 유학 생활 가운데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들을 도와준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장은성 기자

### 전주기전대, 카페에서 신입생과 이색 만남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은 지난 12일 카페에서 신입생과의 이색적인 만남을 가졌다. 이에 따르면 졸업한 누나의 권유로 운동재활과에 입학한 김경민(20)씨는 “먼저 다녀본 누나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전주기전대학을 선택했다”며 “운동 재활 전문가가 돼 졸업 후에 누나와 함께 센터를 운영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오사카 토박이로 자랐지만 한식에 빠져 유학길에 오른 호텔외식조리과 나카무라 노리코(33)씨는 “한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한식의 매력에 빠져 유학길을 선택했다”며 “맛의 고장 전주에 위치한 전주기전대학에서 좀 더 빨리 실무를 배우고 싶어 입학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최고령 입학생인 이문자(82)씨는 “젊은 학생들과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게 어색하지만 매일이 즐겁고 기대된다”며 “교수님께서 학업에 뛰어들지 않도록 곁에서 지도해 주고, 또 옆에서 용기를 주는 동기들 덕분에 제2의 인생을 도전할 자신이 생겼다”고 학업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장은성 기자

## 전북 늘봄학교 학부모 모니터단 위촉

### 초등 1~2학년 학부모 52명으로 꾸려져... 워크숍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서거석 교육감)은 12일 5층 회의실에서 전북 늘봄학교 학부모 모니터단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초등 1~2학년 학부모로 구성된 늘봄학교 학부모 모니터단을 대상으로 정책 이해 및 역할에 대해 안내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늘봄학교 학부모 모니터단은 전북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과 누리집 방과후 및 늘봄지원센터 내 모니터단 코너를 통해 수시로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또 분기별로 협의회를 갖는다. 아울러, 질 높은 늘봄 프로그램 발굴과 우수사례 확산, 늘봄학교 정책 아이디어 제안 및 인식 조사 등을 실시한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서거석 교육감)은 12일 5층 회의실에서 전북 늘봄학교 학부모 모니터단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초등 1~2학년 학부모로 구성된 늘봄학교 학부모 모니터단을 대상으로 정책 이해 및 역할에 대해 안내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늘봄학교 학부모 모니터단은 전북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과 누리집 방과후 및 늘봄지원센터 내 모니터단 코너를 통해 수시로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또 분기별로 협의회를 갖는다. 아울러, 질 높은 늘봄 프로그램 발굴과 우수사례 확산, 늘봄학교 정책 아이디어 제안 및 인식 조사 등을 실시한다. /장은성 기자